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은 말이다' '이것은 설교이다'라는 의미의 "엘레 하뜨바림"이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붙여졌고 영어 제목도 이 헬라어 제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모두 동일하게 신명기(申命記)라는 제목을 쓰는데 한자로는 펼 신(申)을 쓰는 신명기(申命記)입니다.

신명기의 신이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신(神)도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의 신(新)도 아닌 펼 신을 쓰는 이유는 신(申)과 명(命)이 함께 쓰일 때 숙어적인 의미로 '거듭 강조하는 계명'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거듭 강조하여 당부할 때 쓰는 신신당부(申申當付)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들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신1:26).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고(26절) 그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며(27절) 믿지 않았습니다(32절). 그 이후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세대도 모두 바뀌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의 DNA가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4:35 말씀에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천하만물을 모두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 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 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그 분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만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죽음과 멸망이라는 죄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인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인으로써의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둠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분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죄악의 DNA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보다는, 피조물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분을 따라 거룩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내려줄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길 중에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 형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신4:12).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오직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거듭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분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멸망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신4:24). 창조주 하나님을 목석에 불과한 우상과 같이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신4:31). 죄인인 인간들을 향하여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신4:31). 천하만국에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에게 그 분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신4:39-40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